

세계적 양산의 환상적인 골프장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함평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탄력적인 그린피 시스템 운영

- 인터넷회원 예약시
- 평일 최대 3만원, 주말 최대 5만원까지 할인가능
- 예약 : www.hpdynasty.co.kr 061320-7700, 7714



■ 올림픽 야구 최종 예선

베이징행 티켓 1승만 남았다

김경문호 오늘 獨 꺾으면 5승...자력 진출
대만·캐나다 남은 티켓 2장 주인공 될 듯

8개국이 격돌 중인 베이징올림픽 야구 최종 예선이 11일 반란점을 둔 가운데 3장이 걸린 본선 티켓은 주인은 한국, 대만, 캐나다로 사실상 좁혀졌다. 파죽의 4연승으로 선두에 오른 한국과 3승1패의 캐나다는 남은 세 경기에서 각각 1승, 2승씩만 보태면 안정권인 5승을 확보해 베이징행을 확정짓는다. 3승1패인 대만은 12일 오후 7시30분 열리는 호주와 경기에서 이기면 티켓 획득의 8부 능선을 넘게 된다. 2004년 아테네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던 호주는 멕시코에 4-7로 패하는 바람에 2승2패로 몰리며 대만을 반드시 꺾어야 마지막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처지가 됐다. 호주가 대만을 잡는다면 먼저 본선행을 확정할 한국이 14일 대만을 상대로 호주와 대만의 운명을 건 캐스팅보트 노릇을 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 이번 대회에서는 동률팀이 나오면 동률팀 간 승자승-이닝당 최소 실점-이닝당 평균자책점이 낮은 팀-타율 높은 팀-출루율 높은 팀-장타율 높은 팀 순

으로 순위를 정한다. 하지만 5승2패라는 최하 기준선이 제시된 이상 큰 의미는 없다. 막강한 화력이 돋보이는 좌타군단 캐나다는 10일 난적 대만을 6-5로 제압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갔다. 나머지 경기에서 한국에 저도 스페인과 독일을 상대로 무난한 승리가 예상돼 티켓 획득이 어렵지 않다. 한편 한국은 12일 독일을 상대로 손민환을 기용하고 13일 캐나다, 14일 대만과 경기에는 필승카드 류현진(한화)과 김광현(SK)을 잇달아 투입, 전승으로 본선 무대에 오르겠다는 각오다. 대표팀은 네 경기에서 41점을 얻고 8점만 내주는 화끈한 공격력을 선사했다. 이승엽(요미우리)이 타율 0.583으로 전체 2위에 올랐고 2번 타자 고영민(두산)이 0.467로 7위, 토타자 이용규(KIA)가 0.462로 8위를 달리는 등 상위타선이 득점을 진두지휘했다. 특히 이승엽은 홈런(2개)과 타점(9개)에서 전체 1위를 달리면서 세계적인 타자다운 기량을 뽐냈다.

최경주 “컨디션 굿...정상 도전”

유럽골프투어 발렌타인 챔피언십 내일 개막
양용은·앤서니 김 출전...유럽 강호와 대결

“컨디션은 최고다. 목표는 우승이다.” 한국남자골프 간판 ‘탱크’ 최경주(38·나이키골프·사진)가 13일 제주 서귀포시에서 개막하는 발렌타인챔피언십에서 강호들로 구성된 유럽연합군과 실력을 겨룬다. 제주 키크스골프장(파72·7천345야드)에서 열리는 발렌타인챔피언십은 유럽프로골프투어가 한국에서 처음 개최하는 대회이자 아시아투어와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공동 대회이기도 하다. 한국에서는 최경주를 비롯해 지난 시즌 KPGA 최고의 스타 김경태(22·신한은행) 등 30명의 정예 멤버가 출전하고 유럽에서는 2007년 브리티시 오픈 우승자 파드리크 헤링턴(아일랜드)이 나선다. 이번 대회 출전을 위해 예년보다 일찍 귀국한 최경주는 “올해 소니오픈에서 우승도 하고 컨디션도 매우 좋다”며 제주에서 우승 세리머니를 준비하고 있다. 올 초부터 아시아투어를 돌았던 김경태는 올해 처음 국내에서 열리는 대회인 발렌타인챔피언십에서 그동안 기다려온 온 샷을 선보이고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 진출한 양용은(36·테일러메이드)도 작년 10월 한국오픈 이후 5개월만에 국내 무대에 선다. 또한 PGA 투어의 유망주 앤서니 김(23·나이키골프)도 한국팬들에게 실력을 뽐낼 기회를 잡았다. 이에 맞서는 유럽군단의 선두 주자 헤링턴은 작년 브리티시오픈에서 7년 동안 미국 선수들에게 내줬던 우승컵을 찾아오며 유럽의 자존심을 세운 정상급 골퍼. 2005년 혼다클래식과 바클레이스클래식에서도 우승했던 헤링턴은 현재 세계랭킹 10위에 올라 있고 2004년 신한코리아챔피언십 때에도 제주를 찾았기에 한국 땅이 낯설지만은 않다. 베테랑 콜린 몽고메리(스코틀랜드)가 대회 직전 불참을 통보해 아쉽게도 라이더컵에서 유럽대표팀으로 활약했던 폴 맥킨리(아일랜드)도 출전 선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또한 지난 시즌 아시아투어 상금왕에 오른 중국의 골프스타 랑웬홍도 출전한다. 한편 이번 대회는 SBS골프채널이 1, 2라운드는 오후 2시, 3, 4라운드는 오후 1시30분부터 생중계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연합뉴스

정동현 대회전 우승

국제스키연맹 극동컵 국제대회

알파인 스키의 '기대주' 정동현(20·하이원)이 일본에서 열린 국제스키연맹(FIS) 극동컵 국제대회에서 대회전 우승을 차지했다. 정동현은 11일 일본 나가노에서 열린 대회 첫날 대회전에서 1.2차시기 합계 1분58초53으로 1분59초02를 기록한 강민혁(27·용평리조트)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3위는 1분59초42를 기록한 일본의 사토 쇼(22)에게 돌아갔으며, 김우성(22·연세대)은 16위가 됐다.

골프·연도 회원권거래 전문기업

록펠러 회원권

최저 7백만원 회원권, 비 상공회비
에서 월드컵 경기장 및 모야레프스타운
으로 확장사업 하였습니다.
성주에 위치한 대한민국 최고의 거목소
가 되었습니다.

상담 문의 (062)351-0095

테니스 황제 페더러, 샘프라스에 신승

‘테니스 황제’ 로저 페더러(27·스위스)가 피트 샘프라스(37·미국)와 시범 경기에서 힘겹게 승리했다. 페더러는 11일 미국 뉴욕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린 샘프라스와 시범 경기에서 2-1로 이겨 샘프라스와 시범 경기 전적 3승1패가 됐다. 세트 스코어 1-1에서 맞선 페더러는 3세트에서 먼저 두 게임을 따내며 앞서 나갔지만 이후 샘프라스에게 연속해서 5게임을 내줘 2-5로 밀리며 패색이 짙어졌다. 그러나 샘프라스의 서비스 게임을 한 차례 따내며 5-5로 균형을 맞춘 페더러는 타이브레이크 4-5로 뒤지다가 서브 에이스 2개를 연속으로 터뜨려 6-5로 승부를 뒤집고 결국 8-6으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KIA 발데스 ‘도루왕 예감’

연속 도루 성공, 득점까지 삼성에 7-4 승리 주역으로 프로야구 시범경기

KIA타이거즈가 기동성과 집중력을 앞세워 삼성 라이온즈의 시범경기 3연승을 저지했다. KIA는 11일 대구구장에서 벌어진 삼성과의 시범 경기에서 4개의 도루로 삼성의 내야를 흔들며 7-4로 승리했다. 기아 승리의 중심에는 발데스가 있었다. 유격수 겸 7번타자로 나선 발데스는 2회초 1사에서 우전안타로 출루한 뒤 과감한 베이스러닝으로 연속도루를 성공시켰다. 이어 발데스는 9번 타자 김중국의 적시타 때 홈을 밟으며 득점했다. 발데스는 4회에는 3루수 옆을 가르는 2루타로 1사 2, 3루 상황을 만들며 대량 득점의 포문을 열었다. 이어 타석에 들어선 차일목이 좌익수 키를 넘기는 2루타를 터뜨리는 등 7안타의 폭발적인 집중력으로

로 KIA는 4회에만 5득점하며 승기를 잡았다. 과감한 베이스 러닝과 기동성을 강조해왔던 조병현 감독의 주문처럼 KIA 선수들은 이날 루상에서 활발한 움직임으로 상대 선발 투수 이상목을 괴롭혔다. 4번타자로 나선 나지완은 이날 2루타를 포함해 4타수 3안타의 맹타를 휘두르며 KIA의 짜임새 있는 공격을 이끌었다. 선발투수로 마운드에 오른 전병두는 3회말 신명철에게 1점 홈런을 허용했지만 4이닝 3피안타(1홈런) 1실점으로 막으며 선발 진입 가능성을 높였다. 삼성은 신명철과 심정수의 홈런 2개를 포함 8안타와 사사구 10개를 얻었지만 4득점에 그쳐 12안타를 몰아친 KIA의 집중력을 넘어서지 못했다. 문학구장에서선 봉준근을 선발 투수로 올린 LG가 SK 와이번스를 7-2로 물리치고 시범경기 첫 승을 거뒀다. 롯데는 사직구장에서 한화를 8-2로 물리쳤다. 한편 목동구장에서 예정됐던 우리와 두산의 시범경기는 그라운드 및 부대시설 보강공사로 인해 취소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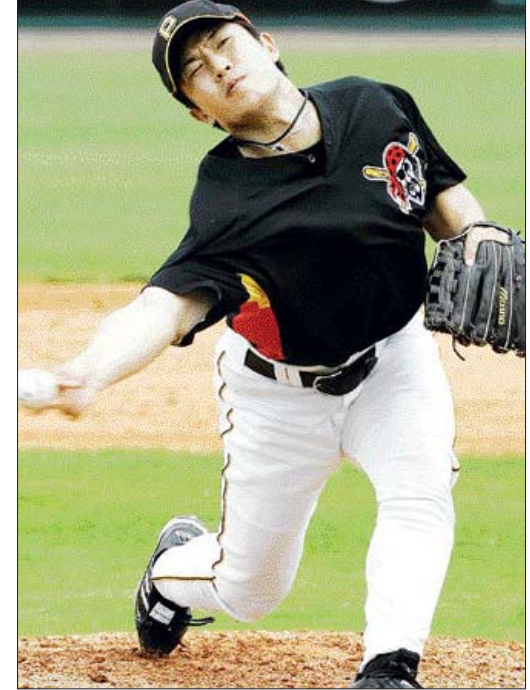
메이저리그 시범경기 소식



3이닝 완벽投

박찬호 3번 등판 무실점 행진

시범경기에서 필필 날고 있는 박찬호(35·LA다저스)가 선발 등판에서도 3이닝을 완벽하게 틀어막아 선발투수진 진입 경쟁에서 앞서 나갔다. 박찬호는 11일(한국시간) 플로리다주 포트로더데일에서 벌어진 볼티모어 오리올스와 시범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3이닝 동안 삼진 1개를 잡아내며 안타, 볼넷 없이 무실점으로 막아냈다. 박찬호는 선두타자 브라이언 로버츠를 삼진으로 돌려세운 뒤 후속 타자 8명을 땅볼 아웃(4개)과 뜬공(4개)으로 처리하는 등 타자 9명을 푼공 뒀었다. 박찬호는 4-0으로 앞선 4회 말 마운드를 에릭 스탈츠에게 넘겨줬다. 다저스는 7-4로 이겼다. 박찬호는 올해 시범경기에서 세 번 등판해 7이닝 동안 안타 2개, 볼넷 2개만 내주고 삼진 4개를 속아내며 무실점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평균자책점은 '0.00'이다.



홈런 1개 허용

김병현 4타자 상대 후강판

박찬호의 후투로 에스테반 로아이자, 제이슨 존슨이 밟고 있는 다저스 5선발투수 경쟁도 후끈 달아올랐다. 로아িয়া는 3경기에 나와 1승1패, 평균자책점 3.86을 기록했고 존슨은 3경기 6이닝 동안 안타 3개를 내줬지만 실점이 없다. 박찬호는 15일 중국에서 열리는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시범 경기에 다시 선발 등판한다. 피츠버그 파이리츠에서 뛰고 있는 김병현(29)은 필라델피아 필리스와 경기에서 홈런 1개를 내주고 물러났다. 김병현은 이날 5-2로 앞선 6회 초 팀의 세 번째 투수로 마운드에 올라 4명의 타자를 맞아 삼진 1개와 땅볼 아웃 2개를 잡아냈지만 4번 타자 라이언 하워드에게 홈런을 얻어맞았다. 피츠버그는 8-5로 이겼다.